

‘생물민주주의’ 진화 탐구하며 예술로 호흡

CULTURE

2025년 5월 7일 수요일

‘2025 제37회 오월미술제’ 31일까지
은암미술관·무등갤러리·시립미술관
오월전·포럼·토크·디지털연대전시

1980년 오월정신을 계승하며 당대의 시대상을 예술로 담아내는 ‘오월미술제’가 5·18 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펼쳐진다.

(사) 민족미술협회 광주지회와 은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제37회 오월미술제’(감독 김신윤주)는 전통있는 오월전과 포럼, 작가 토크, 그리고 새로 선보이는 ‘디지털연대전시’로 이뤄져 지난 1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6일 밝혔다.

올해 오월미술제의 감독이자 작가 김신윤주씨는 ‘생물민주주의’(Democracy as a Living Thing)라는 낯선 단어를 제시하며, 1980년 광주의 대동세상과 내란의 겨울 동안 윤석열을 탄핵한 우리의 집합적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정된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새로이 신체를 생성하며 공생 진화하는 ‘생명 활동’으로 설명했다.

올해 오월전에는 회화를 비롯해 설치, 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관계를 통해 살아 움직이며 진화하는지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그 생명력과 이 시대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작가는 총 33명.

먼저 은암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생물민주주의의



홍성담 작 '개사과' (무등갤러리)

인’ 전시는 작가들의 예술 언어가 12·3 내란과 이에 맞선 민주주의의 재구성 과정을 배경으로, 1980년 5·18민주항쟁과 현재를 연결한다. 참여작가는 김광태 김병택 김미리 김우성 김희련 박성완 박진희 박철우 박태규 손항우 성효숙 신동석 Ainhoa Martinez 양동규 이정기 전승일 전진경 정만영 정희승 최재덕 현유정씨 등 총 21명이다.

또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해방하는 신체’ 전시는 광복80주년을 주제로, 일제의 폭압에 대항해 해방을 이루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우리 민

중의 자유와 생명을 향한 힘을 작품 작가들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준다. 참여 작가는 김경희 김화순 노주일 문서현 박재열 방정아 서지연 윤은숙 이동근 이상호 최대주 홍성담씨 등 총 12명이다.

여기다 5·18 45주년 특별전으로 새로 기획된 ‘디지털연대전시’ Pulse:우리’는 기존의 연대전시를 온라인(https://mayartfestival.com/)으로 확장해 시공간을 넘어선 예술의 연대를 만들어간다. 참여신청은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와함께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병택 작 '다시 만난 세계' (은암미술관)

전문가 초청 포럼이 16일 오후 1시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예술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꿈꾸고 구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뤄진다. 김신윤주 감독을 좌장으로 해 발제는 유기쁨(애니미즘과 현대세계 저자), 임지연(홍익대 미학과 초빙교수), 양진호(철학자, 인문학교육연구소), 신승철(시골큐레이터) 씨가 맡으며, 홍윤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김서라(미학연구원, 광주모더니즘), 정희서(광주시립미술관 연구사), 윤은숙(작가) 씨가 토론에 나선다. 포럼에 이어 광주와 타지역의 작가 다섯

명이 각자의 예술세계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토크 시간도 마련된다.

‘2025 오월미술제’ 관계자는 이번 전시 등 행사에 대해 “시대적 전환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제안한 시도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예술로 호흡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은 8일 오후 4시 30분 무등갤러리의 전시 투어로 시작돼 오후 5시 30분에 은암미술관에서 다과와 함께 내빈, 참여 작가들의 인사,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치열했던 10일 간의 ‘오월 광주’

전문화전당 ‘나는 광주에 없었다’
관객 참여극...15~18일 예술극장

수도권 관객 위한 ‘메모리얼 투어’
민주묘지·전일빌딩245 등 방문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의 5월 레퍼토리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오는 15~18일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다시 오른다.

지난 2020년 첫 막을 올린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치열했던 10일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광주 전담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공연은 1980년 격정적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관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끈다.

관객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재현한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의 중요 역할로 참여하며 그들의 현장을 극적으로 경험한다. 여기에 ACC 예술극장의 무대기술과 광주 출신인 고선웅 연출 특유의 연출기법을 더해 오월의 그날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ACC는 개관 1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초연 당시 200석이었던 객석을 지난해 400석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 518석으로 확장해 더 많은 관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CC 예술극장 극장1의 무대 및 객

석 등 변경을 통해 무대 디자인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되는 ‘2025 ACC 예술극장 시즌 예술인’들도 이번 공연에 합류시켜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공연에는 시즌 예술인 배우 4명(김은숙 박미영 이지은 이정진)을 비롯해 목포 출신의 국민 배우 황영희 등 총 40명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ACC는 올해 수도권 관객들의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 관람을 돕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자 ‘메모리얼 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15~16일(1화)과 17~18일(2화) 등 총 2회 운영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메모리얼 투어’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 관람을 비롯해 국립5·18민주묘지, 5·18자유공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245,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방문 일정으로 구성된다. 투어 가격은 12만5000원으로, 서울-광주 왕복 KTX티켓, 숙박, 식비, 공연티켓, 광주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다.

김상욱 전담장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과 ACC 공연 제작팀이 합심해 만든 공연”이라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은 13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는 전석 3만원이다. 1980년생과 5월 18일~27일생에게는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민주 정신 되새기는 ‘예술만장전’

광주민예총, 30일까지 5·18 민주묘지 입구
오월 콘텐츠 사업...올해 40여명 예술인 참여

(사)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민예총)는 ‘빛의 혁명’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예술만장전’을 지난 2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29일간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진행한다.

‘예술만장전’은 2020년부터 시작돼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이어지는 광주 오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자유와 민주, 생명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내는 기획 전시다. 매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전세계 방문자들에게 광주 오월정신을 알리는 매개체로서 자리잡아 왔다.

6년차를 맞이한 올해 ‘예술만장전’은 ‘Made in 광주, May 브랜드’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를 비롯해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4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난 3일 5·18민주묘



(사)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는 ‘빛의 혁명’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예술만장전’을 오는 30일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제5회 예술만장전’ 현장 모습.

지에서 ‘빛의 혁명, 색으로 되새기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시민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과 함께 자신만의 만장을 직접 그리고 색칠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진영 예술만장전 총감독은 “전국 각지에서 활

동하는 40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5·18 민주묘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역사를 기억하는 뜻깊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정을 다해 준비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어머니들의 소박한 염원과 애환 ‘탐색’

광주예술의전당 공모전...류현자展 내달 1일까지 광주에당서

한국화가 류현자씨의 개인전이 지난 2일 개막, 오는 6월 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사모곡-비우면서 채우는...’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작품은 유려한 비선의 곡선미와 함께 연꽃, 목련, 보름달을 절묘한 회화 작품 30여점.

이번 전시는 광주예술의전당이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한 것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비선을 소재로 어머니의 사랑이야기를 투영해온 만큼 그 성격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 한지와 오방색을 활용해 한국의 조형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온 작가는 ‘사모곡’ 연작시리즈를 통해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비선의 형태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로부터 비선은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져온 가운데 선조들은 비선 모양으로 오리 한지를 장독에 거꾸로 붙이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으며, 궁핍한 삶 속에서도 풍요를 바랐던 어머니들의 소박한 염원과 애환이 스며 있는 물건이 비선



사모곡 (25-3) - 달빛아리랑

이였다.

이런 비선의 조형미를 절제된 선과 구조적 공간감으로 풀어내며 한국 고유의 정서를 놓치지 않고 작품에 투영해온 작가는 작품 속 목련과 연꽃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요소로, 봄을 알리는 목련은 어머니의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진흙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각각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작품화해 주려해 왔다.

한평생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희로애락을 넘어서는 오방색 물결로 표현했듯, 화면 위의 선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경쾌한 울동감을 자아낸다. 섬세한 필치와 강렬한 색채로 어우러진 그의 작품은 따뜻한 기운과 활기를 불러일으킨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

다음 달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됐다. 넷플릭스는 6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456억을 건 마지막 게임이 시작된다”며 공식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3시간 만에 조회수 20만8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은 핑크 가드들이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탈락자의 시체를 넣는 관을 들고 게임 참가자들의 생활동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관을 열자 성기훈(이정재 분)이 얼굴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다. 그는 관 뚜껑이 열리지 허망한 듯한 표정으로 눈을 뜬다.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의 공을 무작위로 뽑고, 미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모습이 담기며 시즌3에서 공개될 게임을 암시했다.

여전히 게임장을 추측하는 경찰 준호(위하준)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홀로 게임장을 살피는 핑크카드 노을(박규영)의 모습도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시즌3는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즌2와 연속으로 촬영됐으며, 시즌2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인 오는 6월 27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연합뉴스